

“향일암서 새해 좋은 기운 받으세요”

여수시, 오늘 제30회 여수향일암일출제 개최
오동도·무술목 등 20곳서 분산일몰·일출제도

여수시가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서 새해 환한 출발을 기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31일 전국 4대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남해안 대표 해돋이 명소인 돌산 향일암 일원에서 ‘제30회 여수향일암일출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일출제는 여수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31일에는 오후 8시부터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마당과 축하공연을 시작

으로 개막행사, 소원 촛불 밝히기, 제야의 종 타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새해 1월 1일 오전 0시에는 지역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후원으로 신년 불꽃쇼가 예정돼 있으며 향일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으로 새해맞이 분위기를 한층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월 1일 오전 7시 36분으로 예정된 일출을 관람한 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해모리 소원등 만들기, 새해 소원지 달기, 이니셜 소원 팔찌 만들기, 병오년

불은팔 열쇠고리 만들기, 새빛 희망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수시는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 6곳, 약 1600면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12대를 운영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주차장이 만차될 경우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소울 신도로 등 인근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한 뒤 셔틀버스를 이용해 행사장 인근까지 방문객을 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시 주차장은 소울 신도로, 대울 평화테마촌, 방죽포레수욕장, 갯고을센터, 죽포삼거리 일원 등에 마련된다.

또 시는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약 25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여수시는 향일암에 집중되는 인파를 분산하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분산일출(몰)제’도 함께 운영한다.

31일에는 소라면 장척마을에서 해님이 행사를 열고, 1월 1일에는 무술목과 오동도 등을 비롯한 시내 주요 일출 명소 19곳에서 일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30년의 역사를 지닌 향일암일출제를 통해 새해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여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전남과학대 협력 강화

지속가능 상생 발전 방안 논의

곡성군과 전남과학대학교는 최근 2025년 제2차 관·학 지역발전협의회의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7년 출범해 올해로 제24회차를 맞은 관·학 지역발전협의회의는 일자리 연계형 전문교육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협의회에는 곡성군 기획실장과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등 양 기관 업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총 22건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1차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타 지역 전입학생 지원사업, 1000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토란 우량품종 선별시험 용역 등 기존 협력사업들이 2025년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주 연계, 고령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지역민 대상 마음돌봄 사업,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등 연계한 학과 개설, 농촌 봉사활동 확대 등 새로운 협력과제에 대한 제안도 논의했다.

유학생 유치 분야에서는 단순한 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곡성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하며 관광·서비스·돌봄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군과 대학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리더십 교육과 지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예방 중심의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군과 대학, 지역 복지·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교육, 청년,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순항

고흥, 전망대 등 2027년 완공 목표

고흥군이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조성 중인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12.2km 구간의 탐방로와 전망대, 데크길,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탐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탐방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적대봉 주위를 일주하는 등산로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체험하는 동시에 소록도와 녹동항을 비롯한 다도해 해상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탐방로 시점부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1차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18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데크길과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가 완공되면, 이후 적대봉을 일주하는 2단계 탐방로 조성사업을 환경부에 추가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누구나 길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탐방로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순천 프리미엄 딸기 공급 생태계 조성 ‘착착’

순천시가 딸기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우량 딸기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품질 육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선정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육묘시설을 중심으로 건강한 딸기묘를 증식하고, 이를 지역 농가에 보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우수한 기본 묘를 활용해 순천시 직영 시설에서 1차로 증식하고, 이를 다시 거점 농가에서 한 번 더 증식해 일반 육묘 농가에 전달하는 단계별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묘 농가에서 사용하는 어미묘(모주)를 2~3년 주기로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래된 묘를 주기적으로 건강한 묘로 바뀌춰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 생산력을 높여, 순천 딸기묘의 전반적인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내년 건립 예정인 순천시 직영 딸기 육묘시설은



순천시가 딸기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우량 딸기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품질 육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딸기 재배 농가 모습.

단순한 생산을 넘어 두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무병묘를 체계적으로 늘려 농가에 전달하는 공급 허브 기능과 이상기온에 대비한 최신 육묘 기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선정 시, 내년 직영 육묘시설 구축

을 먼저 도입해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다. 이는 농가가 기술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살아 있는 전시장’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육묘시설과 ‘꽃는 검사(화이분화 검정) 실’을 운영해 과학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거점 농가 육성과 함께 일반 육묘 농가에도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육묘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순천 육묘 산업의 경쟁력을 하나로 묶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딸기 농사의 출발은 건강한 육묘 확보에 달려 있다”며 “시가 구축하는 체계적인 육묘 시스템을 통해 농가의 모주 갱신 부담은 줄이고, 딸기 품질은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국제교류 지원...7개 외국어 통역관 42명 위촉

광양시는 최근 시청 청의실에서 광양시 국제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8기 광양시 외국어 명예통역관’을 위촉했다.

시는 국제교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마다 외국어 명예통역관을 위촉·운영해 오고 있다.

위촉된 제8기 외국어 명예통역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으며 영어(13명), 중국어(11명), 일본어(9명), 베트남어(5명), 스페인어(2명), 몽골어(1명), 인도네시아어(1명) 7개 언어 42명으로 구성됐다.

명예통역관들은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하며, 시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와 교류사업을 비롯해 국제청소년홈스테이 등 학교와 해외 학교 간 교

류 현장에서 통역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를 통해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기업·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에도 참여해 지역 전반의 국제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글로벌 국제도시 광양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래리타운십과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며 북미권 교류 기반을 새롭게 구축했다. 현재 세계 9개국 1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구례 ‘목욕비·이미용비 바우처’ 지원

내달 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연간 6만원

구례군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49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6만원(반기별 3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한다. 바우처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장 또는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과 동시에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

우처 지원금은 최초 1회 신청 후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3만원씩 자동 충전된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욕장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목욕비, 이·미용비 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각형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